

우코크평원의 새로운 암각화 (무즈디-블락-2 유적)

황 응 훈*

동북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암각화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고 훌륭한 것으로 암각화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한반도에서도 울산지역 반구대, 천전리 남해도지역, 상주, 백련리, 그리고 기타 남해안지역에서 많은 암각화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들의 원류가 어디에 있는지는 한국의 암각화 연구의 기본과제가 되어 왔다. 현재까지는 몽고의 암각화군과의 연계관계가 밝혀지고 있다. 몽고의 암각화도 그 분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지역의 암각화에 대한 충분한 조사는 아직까지 없었다. 지금까지의 암각화 발견은 주로 구소련시대에 조사된 것이 주가 된다. 이들은 이미 작고한 오크라드니코프 교수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몽고라고 부르는 지역은 크게 보아 몽고 알타이고원지대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몽고에서 암각화가 발견된 실에 만큼 몽고 알타이고원 서쪽지역에서도 암각화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견되어 왔다. 지금까지 이 알타이지역의 암각화 발견은 극히 최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의 러시아, 시베리아 고고학연구소 등의 노력으로 상당한 수의 암각화 발견지역이 확인되어 이 지역의 암각화 연구에 획기적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때에 알타이에서 가장 오지이면서도 동서를 연결하는 요지가 되는 우코크지역에서 파지리크 얼음공주가 발굴되는 등 놀라운 고고학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고학적 발굴조사과정과 더불어 이 지역에 대한 암각화 조사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다.

이 지역은 동북아시아 청동기문화의 연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이른 시기에 청동기가 제작되고 사용되었을 지역이다. 그러므로 여러 시기에 걸친 암각화의 발견은 충분히 예견되어 왔으나 그동안 이 지역이 오지이고 여러 나라의 접경지대여서 자세한 학술조사 활동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던 중 최근에 와서 이 지역 여러 곳에서 암각화가 발견된 것이다. 이번에 발견조사된 것도 그런 의미에서 비교적 그 수가 적었던 발견 예를 보강해주는 의미와 또 가장 중요한 동서교통로의 요지에서 발견되어 그 의의가 크다.

결국 이 발견은 한반도 암각화의 원류를 찾는 데 도움을 주며 또 몽고 알타이고원 암각화

* 경희대학교

의 연계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유적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우코크고원은 고르노이알타이(알타이공화국, 러시아)의 남서부, 몽고, 중국, 카자흐스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4년동안 노보시비르스크 소재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지부 고고학, 민족학 연구소와 두 고고학 팀이 발굴을 진행해 왔다.

이 고원지대에서 전기 청동기시대(아파나시예보 문화)로부터 후기 중세기(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대의 고고학 유적과 문화의 핵심적인 연구를 진행해 왔다. 몇 가지 결과는 책으로 출판된 바 있다.¹⁾

우코크고원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방향 중 하나는 암각화에 대한 연구이다. 그 동안 여러 시기의 30지점 이상의 암각화군이 발견되고 연구되었다. 부분적으로 이 자료들은 이미 학문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²⁾ 최근 우코크의 암각화와 연관된 특별한 책이 준비되고 있다.

1994년에 한국의 고고학자들이 우코크를 방문하였다. 이 학자들은 암각화 유적을 포함하여 노보시비르스크의 고고학자들의 발굴조사 결과들을 접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적들 중 하나인 칼구틴스키 루드늑을 방문할 당시 우리는 무즈티-블락강을 통과하기 위하여 머물렀다.

무즈티-블락강은 알타이산맥 얼음지대에서 시작되어 칼구틴강으로 흘러들어 간다. 강을 건너기 전 강 왼쪽에서 머물 때 우리는 빙하가 옮겨다 놓은 모래인인 편마암 혹은 화강암 암석의 군집지역을 조사하였다. 길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강으로부터 왼쪽에 있는 이 암석들 위에서 암각화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군집지역은 대단히 집약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것들은 강 둘레에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림들이 발견된 좁은 지역들은 거의 70미터 사이에 서로서로 놓여져 있었다. 이 발견이 중요한 것은 모래인에 암각을 한 유사 군집지역이 이 고원에서 20지역 이상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모래인 군집지역에

1)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Бертекской долины(Горный Алтай, плоскогорье Укок). Новосибирск 1994; Подосымак Н. В. Стерегутные золото грифы. Новосибирск 1994.

2) Молодин В. И.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долине Укок//№1. 1992 С. 33; Молодин В. И., Черемисин Д. В. К вопросу о связях населения в Саяно-Алтая в эпоху раннего железа(по материалам петроглифов)//Маргулиновские чтения. Петропавловск 1992 С. 89-92; Молодин В. И., Черемисин Д. В. Великолепные лошади блестящих скал Алтая//Природа №9. М 1993 С. 55-61; Молодин В. И., Черемисин Д. В. Древнейшие анималисты Южной Сибири//Сибирское искусство. №1. Новосибирск 1994 С. 9-10; Молодин В. И. Итоги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на плоскогорье Укок // Изучение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и цивилизации. СПб. 1994 С. 69-73; Молодин В. И. Наскальные изображения плоскогорья Укок и проблема миграция человеческих популяций в югозападной части Горного Алтая // Палеодемография и мигр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Западной Сибир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Барнаул 1994 С. 23-26; 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Бертекской долины . . . ;

서 암각화와 접한 바 있는 쿠바레프(B. D. Kubarev)는 암각화의 군집은 전통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목축을 하려는 겨울철 목동의 임시 정주지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은 옳다.³⁾

이 지점을 무즈니-블락-2라고 부르게 되었다. 암각화가 발견된 각 암석에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였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암각화들 중 보다 오래된 것은 No.1 암석(그림3-1,2)에 있는 두 동물 그림이다. 그림은 쫓아파기 기술이 수행되었다. 이들에는 강하게 녹이 생겨 있었다. 두 동물은 머리가 서로 바라보는 모양으로 새겨져 있다. 특히 왼쪽의 상은 큰 몸체와 뿔이 있는 산염소의 모양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그림3-1). 이 두 짐승은 실제적으로 역동적인 포즈를 취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염소의 다리들은 앞으로 달리는 듯 평행하게 뻗어 있는데, 이는 서부 시베리아의 초기철기시대 초기단계의 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 이같이 문화-연대기적으로 유사한 유적들은 우코크고원의 베르텍지역의 암각화군에 있다.⁵⁾

암석1의 암각화에는 의심할 것 없이 더 늦은 시기의 암각화가 덮혀져 그려져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롭다(그림3-3,4). 그림1(역주:그림3-1을 의미함)처럼 산염소가 역시 그려져 있는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려져 있다. 동물의 정적인 포즈, 동체는 직선으로 매우 도식적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人은 이 짐승의 두 뿔이 꼬리 위로 굽어져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림3-3). 그림2(역주:그림3-4를 의미함)는 평행으로 선들을 그어 덮었다(그림3-4). 이는 더 늦은 시기의 암각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와 함께 짐승들 상의 특징적인 양식은 분명히 이미 남부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시대에 특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의심할 것 없이 동시대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암석 No.2,3,4(그림4.5,6)이다. 암석2와 3은 위의 특징적인 동일한 양식으로 수행한 산염소와 동일한 상이 새겨져 있다.

암석 4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 세 동물의 상으로 완전히 구성되어 나타나 있다. 만일 두 그림의 등장물을 특별한 노력없이 읽는다면 이것은 사슴상(그림6-1)과 산염소(그림6-2)이며, 세번째 상은 도식적으로 그려진 몸체의 한쪽부분에 염소의 머리형태를, 그리고 다른쪽은 사슴이 그려져 있는(그림6-3)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식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 문화-연대기적으로 알 수 있는 암각화는 암석 5호에 나타난다(그림7). 이 쫓아파기로 된 직선과 부정형의 얼룩, 그와 함께 새겨파기로 직선을 그린 것이 있다. 하지만 이

3) Кубарев В. Д.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ош-Агауского района//Археологический поиск : Северная Азия Новосибирск 1980. С. 76,77.

4) Шер Я. А. Ранний этап скито-сибирского зверного стиля//Скито-сибирское культурно-истор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Кемерово 1980.

5) Черемсин Д. В., Слюсаренко И. Ю. Бертекская панорама//Древние культуры Бертекской долины(Горный Алтай, плоскогорье Укок) Новосибирск 1994. С. 49~59.

6) Новгородова Э. А. Мир петроглифов Монголии. М 1984. С. 129.

모든 구성은 우리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지 않는다. 단지 쪼아파기가 수행되어 있는 손과 다리를 벌리고 남자 성기를 강조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형상을 읽을 수 있다. 새 기기와 쪼아파기 양식으로 되어 있는 민족지적 시기의 구성 양식은 알타이와 중앙아시아에 잘 알려진 것으로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⁷⁾

끝으로 6번째 암석에 약하게 보이는 두 짐승의 상이 새겨져 있다(그림8). 첫번째 그림(그림8-1)은 분명 여러 크기의 자르기와 쪼아파기로 새겼다. #人은 분명 어떠한 동물을 새기려 했던 것이다. 두번째 형상(그림8-2)은 보다 더 새겨져 있지만 그 상은 첫번째 그림과 비교하여 동일한 것(동물)은 아니다. 연대기적으로 이 둘에 새겨진 상의 연대를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그다지 많지 않은 수의 암각화로 제작양식과 기술적 측면에서 각각 다른 세 시기를 나눌 수 있다.

우선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은 그림이 그려진 곳이 성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아마도 이곳은 수 백년 동안 무즈되-블락강을 건너는 전통적인 나룻터의 기능을 가진 곳이었을 것이다. 그다지 많지 않은 암각화가 발견된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에 필요한 평평한 면을 가진 편마암류의 암석이 그다지 많지 않았음을 설명해 준다.

7) Окладников А. П. Петроглиф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Л. 1980. Табл. 156.
Перечень иллюстраций к статье В. И. Молодина и Хван Ёнхун "Новые петроглифы плоскогорья Укок. (Местонахождение МуэдыВулак-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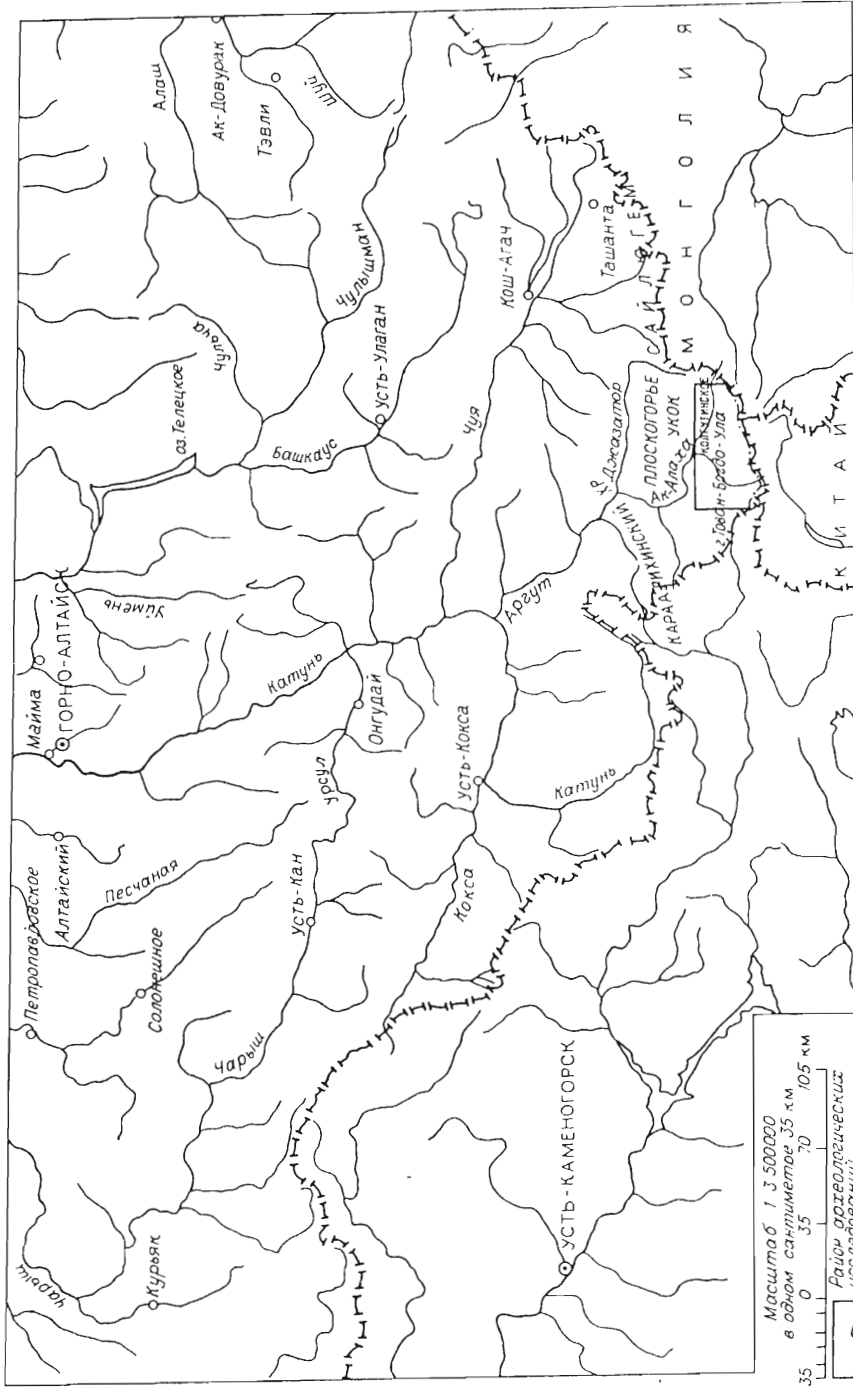


Рис. 1. Месторасположение плоскогорья Укок.

그림 1. 지도 우코크고원



그림2. 우코크고원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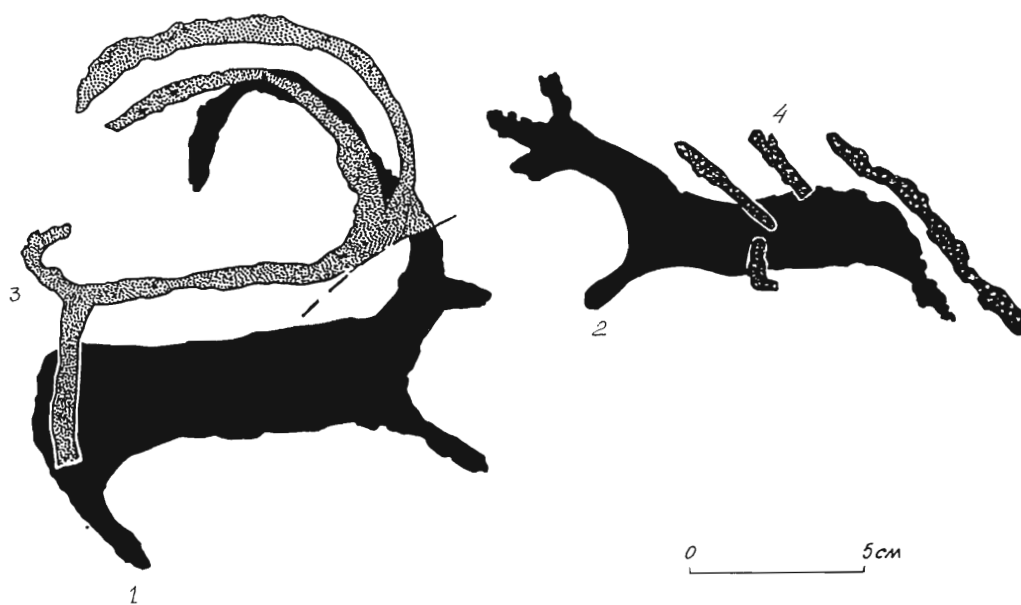


그림3. No.1 암석상의 암각화들



0 5cm

그림4. No.2 암석상의 암각화



0 5cm

그림5. No.3 암석상의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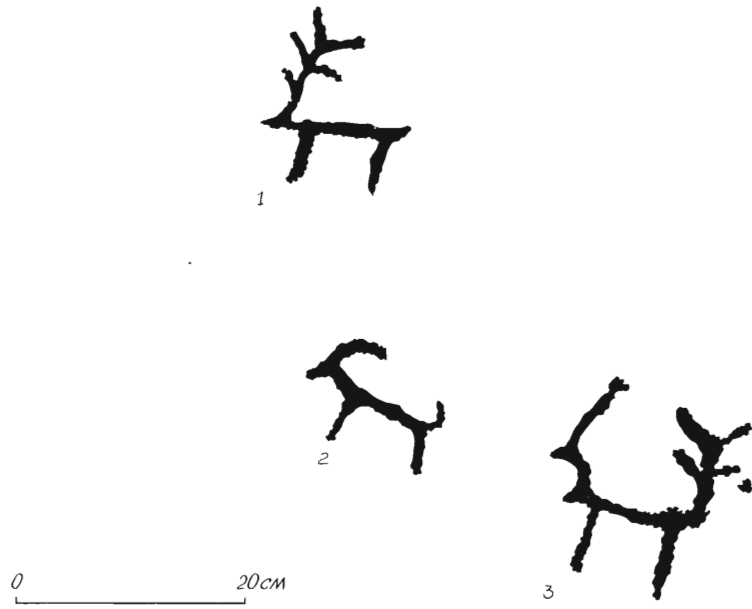


그림6. No.4 암석상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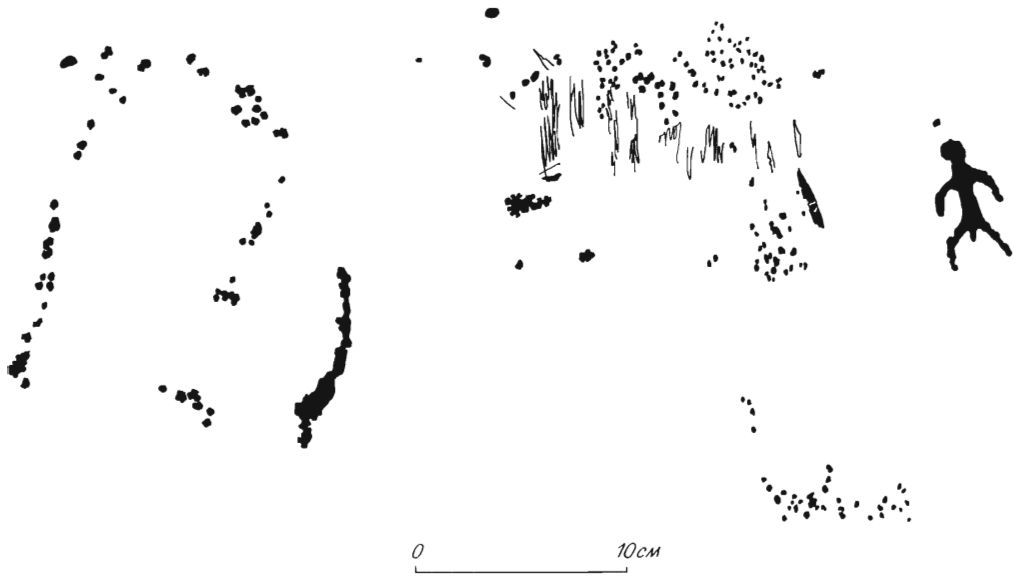


그림7. 민족지 시기의 No.5 암석상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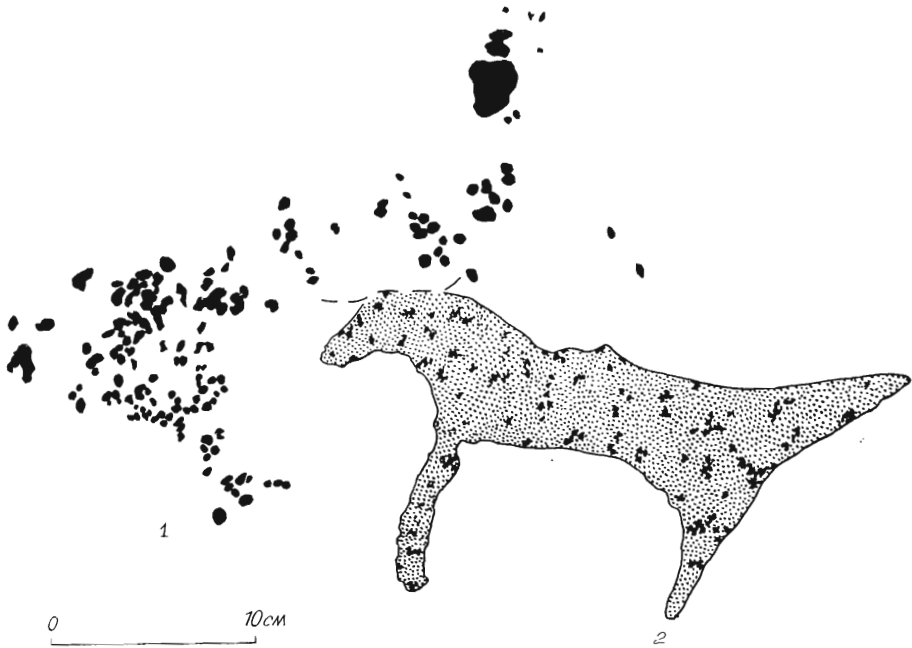


그림8. No.6 암석상의 암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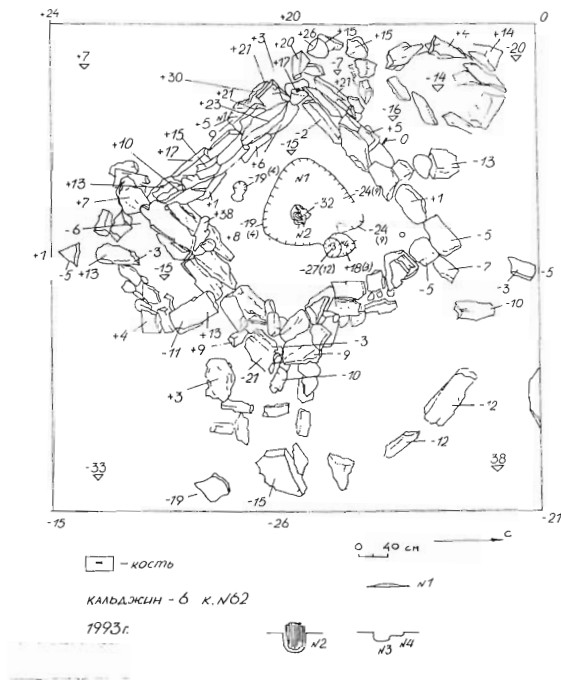


그림 9. cult place